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반대의 길인 폭력과 평화

“비폭력:평화를 이루는 길”이란 제목의 제 50차 세계 평화의 날 메세지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정과 신앙공동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제 공동체들은 비폭력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2017년도 세계 평화의 날 주제가 복음이 말하는 비폭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정말 기뻐다. 나는 여러해 동안 정의평화에 대한 일을 하면서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대화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것을 내가 정평환 활동을 하는 동안 누누히 말해 왔다.

교황의 메세지는 폭력은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 평화는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비난 투성이고 험담하는 폭언을 많이 한다. 이런 대화는 잘 해야 제자리 걸음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화 중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수가 많다.

프란시스 교황의 평화의 메세지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처럼 비폭력적 삶을 살라고 한다. 형제자매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폭력은 피할 수 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과 메세지에 담긴 뜻을 이해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선입견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나쁜 선입견을 갖고 비록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이 긍정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으로 판단한다. 즉 처음에 가졌던 “나쁜 인상”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판단은 성급히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다음과 같은점이 우리가 매일저녁 반성할 부분이다.

- 사람들에게 대한 처음의 선입견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
-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는가?
-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들을 새로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이 문제를 복음에 입각하여 잘 생각해 보자. 이것이 복음적 비폭력을 사는 첫 걸음이 된다. 이것이 자주적이고 화목한 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렀다. 재속회원인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이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어떻게 우리는 서로서로 소통 하는가?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음으로, 프란치스칸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마음을 터 놓고 지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불편한 만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형제자매들 사이에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 형제자매들을 “그냥 한 사람”으로가 아니고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2017년 7월 27-30 미조리 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될 전국 정평환 모임때 까지 줄곧 계속될 것이다. 비폭력적 삶을 사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우선 남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나 프란치스코 같은 복음적인 삶을 살자면 비폭력적인 사람으로, 정의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정평환 모임에 일찍 등록하시기 바란다.